

'일체유심조' 깨달아

선지식을 찾아서



위했다"고 한다. 특히 낱자와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부처님의 말씀을 한 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했다는 '아난존자'에 비유되기도 한다.

스님은 요즈음 돈 때문에 천천히 여기는 세태에 대해, 이혼을 결혼하는 것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세태를 안타까워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었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의 인연과 스승과 제자의 인연은 십천겁(十千劫)이요, 형제의 인연은 구천겁(九千劫)이요, 부부의 인연은 팔천겁(八千劫)이요, 일가친척의 인연도 칠천겁(七千劫)이라 하였어요. 그러나 나와 인연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얼마나 지중환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도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기 마련이니 모든 것이 연기의 원리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멸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인생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엮어 나가야 돼요."

법흥 스님은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 라면서 마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다.

"마음은 상이 없는 무상(無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만물을 지배하지요.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이 정토가 되기도 하고 슬픈 고택이 되기도 합니다. 불교는 이 마음을 길고 닦고

기르는 공부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修心)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養心)이요,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用心)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지배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면 정토에 갈 수 있는가 하면 첫째는 청정(淸淨)한 마음 즉 맑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체 스님은 청정심이 곧 부처라 했습니다. 내 마음이 맑을 때 부처의 마음이 되는 것이며, 내 마음이 더러울 때 축생의 마음이 되는 것이지, 광명정대(光明正大)한 마음, 탐진치가 없는 마음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둘째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마음만 지녀도 세상 살아가 힘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십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신을 들여다보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수행의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것이 '심우도(心牛圖)'라면서 설명해 주었다. 소를 찾는 그 과정을 열 개의 그림으로 그렸다고 해서 '심우도(心牛圖)'라고도 한다. 심우도의 첫째 그림은 소를 찾아 나서는 심우(心牛)로 시작한다. 그 다음은 소의 자취를 보는 견적(見跡), 소를 발견하는 견우(見牛), 소를 얻는 득우(得牛), 소를 길들이는 목우(牧牛), 소를 타고 돌아오는 기우(騎牛歸家), 소를 잊어버리는 망우존인(忘牛存人), 자신마저 있는 인우구망(人牛俱忘), 맑고 깨끗한 본성으로 돌아가는 반본환원(返本還源), 마지막 열 번째는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 깨달

음을 배우는 입전수수(入塵垂手)이다.

"마지막 입전수수(入塵垂手)의 계승을 보면 '사립문 닫고 홀로 앉으니 천성(天聖)도 알지 못하네. 자기의 풍광(風光)을 묻어 버리고 선현 따라 밝은 길도 모두 저버렸다. 표주박 차고 거리에 들어 지팡이를 끌고 집집마다 다니며 스스로 붓대를 이루게 한다'고 하잖아요. 불교는 자력의 종교이기에 스스로 부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우도'는 가장 현대적인 선어록이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에게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법흥 스님은 예까지 왔으니 선물을 주어야겠다면서 서가에서 미리 준비해 둔 선간을 여러 권 뽑아 주었다. 스님은 불일서점에서 좋은 책을 한 가득 사다놓으셨다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다. 무거워서 다 들고 갈 수 없다면서 두어 권을 내려놓자, 멀리 갈 떠나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 먹이지 못하고 보내는 것처럼 스님은 참으로 섬세해 하셨다.

법흥 스님의 설명을 떠올리면서 송광사 승보전에 그려진 '심우도(心牛圖)'를 다시 한 번 둘러보았다. 물 절로 흐르고 꽃 절로 붉게 피어 아담답고, 나무위새 절로 단풍들어 땅으로 돌아가니 자연은 시시비비가 없다. '저 잿빛 이끼 청청히 자라거든 내 피도 짙어져 새 봄에 다시 잠히 하리라'는 어느 시인의 시구를 읊조리면서 들어가 보지도 않은 조계산을 빠져나왔다.

글: 사진=문운정(필자),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3> 석주 큰스님

강석주 큰스님은 오유지족(吾有知足) 대비보살이다. 1909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사익재 글방에서 한학을 배우고, 9촌 아저씨를 따라 서울 필방에서 일을 보게 되었다. 선학원 남전스님에게서 글씨를 잘 쓰셨기 때문에 붓심부름을 다니다가 14세에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6년 동안 행자생활을 거쳐 범어사 강원원에 들어가 6년, 오대산 상원사, 금강산 마하연, 덕수산 정혜사, 묘향산 보현사 등 선방에서 또 6년을 지내는 동안 효봉·정담·해안 선지식 등을 가까이 모시게 되었다.

스님은 46년 경봉·응답·대의 스님 등과 함께 불교개혁운동에 앞장섰고, 49년 동산 스님에게 비구계를 받고, 51년 김해 은해사 주지가 되었다. 53년 효봉·동산 스님 등과 함께 불교정화추진위원회를 갖고 이듬해 대의 스님과 같이 정화운동을 발기했으며, 58년 불

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매일같이 수십 명의 손님을 치뤄야 할 정도였다.

나는 지금도 만해 스님의 스승 응답 스님에게서 번역한 <선가구감> <한글 범망경> <금강경> <보현행원품> <유마경> 등을 가지고 있다. 운허 스님은 이때부터 <부모은중경> <승만경> <금광명경> <무량수결> <능엄경> <화엄경> <열반경> <법화경>을 번역하여 유명하였고, 탄허 스



의 선서(禪書)까지 곁들여 글씨가 '봄 바람 가을 달'처럼 맑고 시원하다. 많이 있어도 혼잡하지 않고, 하나를 들고 보아도 외롭지 않다. 그 속에는 눈 서리와 같은 겨울과 따뜻한 사랑의 자비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해서나 명예를 위해서는 한 자쯤도 쓰지 아니하면서 불사를 위해서는 밥값을 가리지 않았다. 대중 절 불사나 군법당 불사를 위해서 수백 장, 수천 장 쓰시는 것을 보았다. 붓글씨 때문에 대부분 맨발로 지내셨고 적삼을 벗어서 손님이 오면 민망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다. 특히 절 주연을 한글로 쓴 것은 스님으로부터 처음 시작된 것이다.

동국대학교 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는 중비생제도와 승가학과를 만들어 스님들에 대한 학문 탐구의 길을 터놓았다. 77년 조계종 포교원장 소임을 맡을 때는 승려의 자질향상을 위해 중앙고

항상 만족할 줄 아는 대비보살...정화·역경·포교의 '선봉'

국사 주지가 되었다. 60년에는 사태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이 되었다가 61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을 지내면서 운허 스님과 함께 현 동국대경원의 전신인 법보원을 설립해 불교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이 당시 선학원에서 책이나 출판기념회를 한다든지 법보사가 있으면 도반들과 함께 선학원에 들러 자주 보았다. 당시 스님은 선학원 이사장으로 계셨지만 항상 짧은 배짱방이에 하얀 띠를 두르고 소매를 걷고 후원 일을 하고 계셨다.

선학원은 원래 남전·도봉·석주 세 스님이 3000원씩 돈을 내어 창건하였으나, 뒤에 성원·용성·만공 스님이 동참하면서 전국 79명의 선사들이 모여 선학원회를 발족하면서 불교정화운동의 본거지가 되었다. 한국불교 지성인치고 들리지 않는 사람

의 <육조단경>, 갑달선 선생의 <한산시>, 이종의 박사님의 <현우경> 등이 유명했다. 이후 운허 스님의 <불교사전>이 나오면서 64년 7월 동국대경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스님께서 불국사 주지가 되어 경주 포교당에 나갔을 때, 어린이들이 모여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어린이 포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65년 월보사에 철보어린이합창단을 창단, 세계순회공연을 갖게 되었고 70년에는 청소년교화원을 설치해 총재가 되었다. 이와 같이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 불사에 동참하면서 남몰래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부모 없는 자식들을 길러 삶의 길을 열어 주었다.

스님께서 하심하고 일 잘하시는 것 외에 한 가지 재주가 있다면 붓글씨 쓰는 일이다. 어려서 서당에서 익힌 글씨와 남전 스

욱원을 신설하였고 포교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79년 돈암동 보현사에서 중앙승가대학을 시작해 85년 개운사 학교가 생길 때까지 성라암 비구니대학과 합쳐 지하 1층 지상 3층, 480평 건물을 지어 능력 있는 혜성 스님에게 물려주었다. 한번은 불교신문을 보시고 연락하여 가니, "돌아가신 법사스님 책을 낸다면서 장하다"하고 일금 30만원을 주시고 금강선원 기로원 건립할 때는 100만원을 보시해 주었다.

해방 후 우리 불교계의 소망이 역경·도제양성·포교였는데, 스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실천하였다. 단지 불교정화운동 때 3대 7의 비율로 싸웠는데, "가능하면 대처스님들의 권속에 대해서도 나갈 길을 만들어 놓고 쫓아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실수가 많았다"고 항상 회개하셨다.

모 연 문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 도량에 법당을 확장함에 있어 여러불자님께 불사를 구하게 되어 인사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에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래 사진은 본승이 흥천부근을 지나다 물이 맑고 깨끗해 손을 씻다 발견한 돌로써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에 나오는 선재동자상과 흡사하여 법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신 불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 도량이 천년을 이어나가는 사찰로 불사를 이루게 불자님들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감악산 관음정사

주지 석 서화 합장

주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 1동 147-9
전화 : 031)859-0674 / 011-9246-833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도 금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i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영숙)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21년 전통
조상의 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집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 루 지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지죽염 230g 50,000원
일광이 지죽염 125g 30,000원
일광이 지죽염 230g 27,500원
일광이 지죽염 230g 55,000원
일광이 지죽염 230g 50,000원
2번 구분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기본 배움비 25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자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통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분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펴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범어집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의 거목 지혜재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ऐ러한 지혜, 선기로 넘쳐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았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